

12월 스리랑카 선교 이야기

하용원선교사(스리랑카)



스리랑카 코로나 상황

스리랑카의 코로나 상황은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의 회복이 코로나 확산 둔화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오랜 봉쇄의 여파로 피폐해진 경제 회복에 중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및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에도 스리랑카 정부는 심각한 경제난에 방역 조치를 둔화하고 경제의 회복을 꾀하고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얼마나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있는지 실제 정보가 통제되고 있고, 정부 주도하에 느슨해진 방역으로 임박한 4차 코로나 창궐이 염려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선교사역은 진행되어야 하기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여 파송하는 신학교 RBC 사역

신학교 RBC는 어려운 중에도 2021년 학기를 잘 마무리 하였고, 2022년 새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계속 비대면 수업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신입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스리랑카 교회들의 영적 동력이 소진되었고, 목회자가 되려는 열망들이 차디차게 식은 형편이라서 신입생 모집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태입니다. 오랜 기간의 코로나 상황, 방역과 봉쇄조치, 그리고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임을 믿으며 지금의 위급한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어 주님의 제자를 힘있게 양육하고 훈련하는 신학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여 파송하는 신학교 RBC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건강한 스리랑카 교회를 일구는 선교공동체 SMC 사역

SMC 산하 15개 교회들은 코로나 상황속에도 목회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반복되는 모임 금지와 인원 제한 조치로 어렵고 긴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SMC 15개 교회들은, 스리랑카에서도 가장 열악하고 가난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홍차 농장 지역에 개척되어 성장했던 교회들이기에 오랜 코로나 상황, 또한 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인한 피해가 더욱 더 극심합니다. 하루 하루 버티는 것도 힘들어지는 지경까지 내몰리고 있는 교우들, 그들의 생활의 피폐와 그로 인한 극심한 심리적인 두려움들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SMC 15명의 목회자들..., 고통을 함께한다는 것이 실로 무겁고 무겁지만, 더 기도하고, 더 위로하고 더 구제하면서 힘든 이 시간들을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의 동역자 여러분,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소망과 믿음이 절실한 시간입니다. 삭풍(朔風)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明月)은 눈 속에 차디 차지만, 주님이 주시는 봄 바람의 기운은 멀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의 선교사역은 멈출 수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스리랑카를 향한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와 성원이 삭풍에 맞서는 순풍 한자락 되길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복된 강림절에 인도양 스리랑카에서 소망합니다.